



사단법인 | 국제기아·질병·문맹 퇴치기구

한국제이티에스

Join Together Society <http://www.jts.or.kr>



표지사진 : 수자타아카데미 기념식에서 전통무용을 선보이고 있는 학생들 (2006년 1월)

JTS 통권 58호 2006년 3·4월

퍼낸날 : 2006. 3. 1

퍼낸이 : 법 료

만든이 : 김경희

도운이 : 최양희, 서동우, 전성지, 현희련
최정연, 이미경, 정한정, 김애경
유명규, 김순연, 정미숙, 장성호
김옥희, 양윤덕, 김현미, 정유석
박경미, 김영자, 윤경숙, 박연옥
김점희

퍼낸터 : (사)한국JTS

주 소 : 137-875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
정토회관 2층

전 화 : (02)587-8995, 587-8756

전 송 : (02)587-8998

E-mail : jts@jts.or.kr

인터넷 : www.jts.or.kr

디자인·제작 : 신명기획 ☎(02)2273-6128

인도 동계스와리 소식

- 4 지난 겨울 동계스와리에서는
- 10 수자타아카데미가 희망이 되길
- 12 아름다운 세상, 즐거운 나

지금 북한에선

- 15 아픈이들의 고통이 나의 아픔으로

필리핀 소식

- 20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

후원의 소리

- 23 미국에서 날아 온 사랑

따뜻한 이웃

- 25 노란우산이 되어주세요
- 28 내 작은 보탬이 뿔뿔이 되는 곳

활동보고 및 안내

- 30 인도지원사업
- 기타사업소식
- 국내소식
- 34 라진·선봉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 36 통일돼지저금통 후원금 및 거리모금 현황
- 39 신규회원(개인, 단체) 명단
- 40 물품후원
- 42 CMS 신청안내

지난 겨울 동게스와리에서는

- 장영주 인도JTS 사무국장과 함께(1) -

계절이 바뀌므로, 달력의 마지막장을 보면서, 또 생일을 맞이하면 1년이 지났다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된다. 하지만 나에겐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1년이 지났음을 상기시켜주는 일이 있다. 인도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1년에 한번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파견 실무자들을 만나는 일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설을 맞았고, 장영주 인도JTS 사무국장님도 이 때를 같이하여 한국에 오셨다. 뻘뻘하게 짜여있는 약 한 달간의 한국에서의 일정에서 그 틈새 시간을 비집고 소식지 편 집식구들이 모였다.

우물이 말라서 먹을 물이 없어요



만코시힐 마을에서 신입교장 스위티의 통역으로 아이들에게 학교에 다니는지 일일이 물어보았다.

이번 겨울 범륜스님 (JTS 이사장) 방문에 대한 얘기부터 해 볼게요.

1월 25일부터 시작된 마을 방문은 먼저 두르가푸르, 방갈비가, 만코시힐 마을의 유치원을 방문했지요.

만코시힐 마을은 길을 따라 길게 생겼는데 그 초입에 유치원

이 있어요. 그래서 저 반대쪽에 사는 어린이가 유치원에 오기 힘들겠다고 스님께서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는데 조금 멀다고 그러더군요. 지난번에 왔을 때 보니 유치원이 많아 복잡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어디쯤에 유치원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는지 물어보

고 개인땅을 기증할 사람이 있을지 알아보았는데 마침 동네사람 한 분이 적당한 곳에 땅을 기증하겠다고 해서 그곳에 유치원을 짓기로 했어요.

스님께서는 주변에 마을 사람들이 모이면 아이들에게는 학교에 다니느냐고 물어보시고 안다닌다고 하면 '학교에 오라'고, 부모님에게는 '우리가 천민들을 위해 학교를 만들었는데 안보내면 어떡하느냐', 또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셨어요.

지금 마을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물이에요. 2년 동안 기물었는데 작년은 농사가 안돼서 식량 걱정을 했지만, 올해는 먹을 물이 없을 정도예요. 우물은 말랐고, 물이 안나오니 펌프질을 많이 해서 펌프는 고장난 것이 많았어요. 물이 안나오는 펌프는 파이프를 더 깊이 박기 위해 파이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고장난 펌프도 고쳐달라고 했어요.

다음으로 소라즈비가, 안투비가, 아자드비가, 아마르푸르, 산티나가르 유치원을 방문했는데, 산티나가르 마을에 있는 유일한 우물 하나가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2km 조금 못 미치는 곳까지 물을 길러 다니고 있더군요. 옆 마을에서 농업용수로 쓰려고 물을 퍼 올리면 물이 안나오기 때문에 다른 곳에 우물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물이 나올 만한 위치를 얘기해 주었어요.

아마르푸르 마을은 2005년에 처음 지원을 한 곳인데, 현재 동네 회관에서 유치원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곳 사람들은 모두 하리잔(불가촉천민)이에요. 그런데 유치원을 지을 땅을 내놓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부지도 보고 어떻게 유치원의 방향을 잡을 것인지도 얘기했지요. 안투비가 마을도 우물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소라즈비가 마을은 작년에 유치원 앞에 펌프를 뚫는데 물이 안나왔어요. 그래서 식수원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우물과 펌프 중 어느 것이 좋은지 알아보았어요. 여기서도 펌프를 고쳐달라는 요청을 받았고요.



산티나가르 마을에 딱 하나있는 우물이 말랐다.

자그디스푸르 마을은 식수용 펌프와 농업용 펌프를 파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런데 농업용으로 쓸 펌프 위치가 너무 위쪽인지라 물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고갈돼서 아래쪽에서 식수가 딸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는 좋지 않고 산에서 먼, 아래쪽으로 위치를 바꿔야한다는 얘기를 전했어요.

26일은 수자타아카데미에서 진행하

는 인도 공화국 건국기념일(Republic Day) 행사에 참가하셨어요. 텔리에 불자회가 있는데 스님의 금강경 테이블프를 듣고 열심히 정진하시겠다고 마음을 내신 십여 분들이 올해부터 불교대학을 개강해서 공부하고 계세요. 그 중 텔리에 사시는 신정희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점심을 대접하라고 후원금을 주셔서 기념식이 끝나고 두르가푸르, 자그디스푸르 마을사람 총 1,200여명(230여 가구)에게 점심으로 밥, 사부지(야채볶음의 일종), 과일을 대접했어요. 그런데 그릇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양재기, 향아리 같은 걸 가져와서 무척 많이 받아가서 나중에 늦게 온 200여명은 못 먹어서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다시 오라고 해서 주었지요.



비만 오면 비가 새서 다음날 집수리를 위해 결근을 해야하는 마을 사람들의 주택개량을 위해서 재료와 크기에 따른 비용을 조사하였다.

27일 오전에는 산 너머 마을인 스리람푸르, 바가히, 까나홀, 가왈비가 유치원을 방문하였어요. 다른 곳과 같이 유치원 운영, 마을사람들의 식수원, 주거환경을 집중 살폈는데 지붕이 승승 뚫려 있는 곳이 있어서 물어보았더니 흉년이라 지붕 이을 지푸라기가 없다

고 하더군요. 마을사람들이 멀리 나가서 논일을 하기에 알고 보니 일을 하고 하루 일당을 자신이 벤 벋단으로 받는데 흉작이 든 논에 가서 일을 하면 쪽정이 벋단을 받기 때문에 그런 곳은 일꾼이 없어 벋도 벋지를 못한다고 하더군요.

지붕 있는데 돈이 얼마나 드나 물어보고, 돈이 적게 드는 주택개량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저런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어요. 마을사람들은 벽돌집을 선호해요. 전통집은 흙집이고 초가, 기와지붕인데 흙집은 손질 관리하는데 일이 많아서 벽돌집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방 두칸 정도(5평정도)의 벽돌집을 짓는데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 보니 2만 5천 루피 정도가 필요하더군요.

인도 JTS가 하는 일은 교육 중심에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마을개발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모형을 만들어 자료를 만들면 다른 가난한 지역에 가서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되죠.

드디어 수자타아카데미에 기숙사를 지어요



기숙사 기공식

우리학교에 기숙사를 짓게 된 기쁜 소식을 알려 드릴게요.

수자타아카데미가 있는 동계스와리 지역은 전기도 안 들어오는 낙후된 지역이에요. 아이들의 부모님은 교육에 대한 열의도 없고 거의 농사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면

농사일, 집안일이 많아요. 거기다가 밤이 되면 호롱불 밑에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요.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식만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남을 위해 봉사하고 서로 돕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익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해요. 이런 과정이 결국 이 지역을 자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되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내기위해 기숙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단위가 너무 커서 계속 미뤄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에서 2억원을 지원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지금이 딱 기숙사가 필요한 시점인데 정말 고맙죠. 아이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난 1월 28일 법륜스님과 박지나 해외사업본부장님 외 많은 분들과 수자타아카데미 교사와 학생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숙사 신축 첫 삽 뜨기 행사를 가졌어요. 공사기간은 2년 정도 걸리고 12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거예요. 상급생들이 유치원 선생님과 학교일 전반에서 필요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서 공부도 하고 다양한 훈련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기숙사에서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 본사와 협력, 자립적인 마인드를 가진 인도 현지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예요. 2억원의 지원금은 기숙사뿐만 아니라 교실 증축과 학생들 물품 중에서 가방을 지원하게 될 거예요.

청소년 노동학교와 기술학교, 첫 졸업생을 배출했어요

청소년 노동학교와 기술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했어요. 노동학교 졸업식은 1월 28일에 있었는데, 노동학교는 2001년 10월에 만들어졌고, 2002년도에 1기 입학생을 모집했어요. 과



청소년 노동학교 졸업식

정은 3년인데 출석률이 저조해서 1년을 연장해서 4년 만에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기 학생들은 4년을 다니게 되었지요. 1기생은 탈락자가 한명도 없어서 6명, 2기생은 절반정도가 탈락해서 5명, 그래서 모두 11명이 졸업을 했어요. 이들은 전원 인도JTS 건축파트에 취직을 시켜줬지요. 스님 표현에 따르면 우리 건축파트에 취직하기가 한국

으로는 삼성에 들어가는 것보다 확률적으로 더 어렵다고 하시더군요.

현재 후배들은 15명이 있어요. 3월에 새로운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에요. 청소년 노동학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가르친 것은 '시간 맞추어 성실하게 출석하는 것, 결석을 하게 될 경우 꼭 사전에 허락을 받는 것, 기술을 배우는 것' 이예요. 별 이유 없이 결석을 하는 게 가장 문제가 커요.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도 안 오면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노동학교 졸업생들에게는 졸업선물로 작업도구와 저축금을 주었지요. 출석률, 기술에 대한 평점을 매겨서 저축금에 차등을 주면서 출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도록 했어요. 기술학교 3학년 6명도 같이 졸업을 했어요. 모두 8명 입학했는데 2명이 탈락했죠. 졸업생 중에 한사람은 JTS 건축파트에 취직을 했고, 나머지 5명은 델리 근교에 있는 한국 회사에 소개시켜 주기로 하고 2개월간 실습을 하면서 취업준비를 하고 있어요.

전 수자타아카데미 교장선생님, 뿌리앙카님이 한국에 와요



신임 교장 스위티와 전 교장 뿌리앙카

이번에 스위티님(전 유치원원장)이 교장으로 임명되었고, 유치원원장으로는 까필데오님(전 유치원 선생님)이 임명을 받았어요.

뿌리앙카님은 수자타아카데미에서 2대 교장으로 6년간 근무를 하셨습니다. 뿌리앙카님이 우리의 활동목표와 방식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고



모범적으로 솔선수범해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학교가 이 정도 안정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임기를 마치고 보직순환제로 한국에 오게 되었죠. 현재 인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인력 양성이에요.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과 타지에서온 인도인이 운영자였다면 앞으로는 현지인들이 주체가 되어 모든 것을 운영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인도사람들이 직접 교육을 해야해요. 그래서 뿌리앙카님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배우고 훈련을 받고 인도에 돌아가서 중심인력이 돼서 더 많은 현지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죠.

뿌리앙카님이 1년 정도 생활을 하고 한국어를 하게 되면 다른 인도활동가들도 한국에 와서 훈련을 받을 계획이에요. 전체 프로그램을 약 5년 정도 잡고 있어요.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무 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학교에 와서 공부도 하고 병원에 와서 병을 나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마을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일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어요.

우선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시골이니깐, 농업기술을 향상시켜서 농업 증산을 해서 소득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주거환경, 물 문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농업기술을 향상시킬까, 좋은 생각과 기술을 가진 분들의 참여와 조언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느낌, 감회를 묻는 막연한 질문에 어김없이 동게스오리 마을 사람들의 삶에 몰두하여 답을 내리는 모습을 보며 '역시 장국장님이다' 하는 생각이 든다. 짧은 단발머리에 나이들과 상관없이 변치 않는 외모를 지닐 수 있는 비결은 나보다 남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한결같은 마음에 있지 않을까 싶다. 12년의 결실로 이제 학교의 틀이 공고히 서게됨이 기승 벅차게 다가오지만, 먹을 물이 없을 정도로 말라버린 우물과 고장나 버린 펌프는 12년의 세월을 무색케 한다. 자연이 하는 일을 인간이 넘볼 수 없겠지만 참으로 안타깝고 기승 답답한 현실이다. 기쁨과 허탈감이 교차하는 얘기를 전해 들으며 '문제가 있으면 해결 방법도 있다'는 한 가닥 희망을 가져본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 둘 모아보면 희망이 현실로 바뀌는 그 날이 조금은 빨라지지 않을까.

취재 · 정리 | 박경미

이 인터뷰 글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2회에 걸쳐 다음호에도 신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편집자주)

수자타아카데미가 희망이 되길

권윤정 | 정토회 상근 자원활동가



몇 년 전 후배와 의기투합하여 인도여행을 하고, 2주간 수자타 아카데미에 남아 자원 활동하기로 약속했는데, 실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이번 기회에 학교에서 3일간 머물게 되었다.

학교로 가기 전에 17번째 유치원 개원식에 들었다. 학교는 자재비만 부담할 뿐 마을 사람들이 땅을 내놓고 노동을 해서 짓는다고 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오전에는 유치원교사를 하고 오후에는 중학교 과정을 배운다. 음악 소리가 나오고 색종이가 날리는 살구색 건물에 도착하는 동안 달렸던 길은 2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먼지가 많이 났다.

성지순례단과 마을 사람들로 꽉 찬 마당에서는 인도 전통음악을 연주하며 남자들이 신나게 춤을 추고 있었다. 나는 맨 뒤에 앉아 있었는데 젊은 엄마는 칭얼대는 아기를 안고 선 채로 젖을 물리며 수줍게 웃는다. 여기서는 10대면 결혼을 한다니 그 엄마의 나이는 어쩌면 아주 어릴 지도 모른다.

몇 개의 유치원 앞으로 버스가 지나갈 때 노랑 셔츠와 초록 치마, 바지로 된 유치원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꽃목걸이를 가지고 나와 환영했다. 학교는 크고 깔끔했다. 학교는 3층의 살구색 수자타아카데미 건물, 식당과 공양간 건물, 그리고 게스트하우스가 붙은 법당 건물, 야외 강당, 지바카 병원, 공사 중인 기숙사 건물로 이루어져 있었고 첫 해에 심었다는 나무들이 제법 크게 자라 있었다.

다음 날 수자타아카데미 12주년 개교기념식에 참석했다. 개교기념식을 기해 준공한 야외강당의 그늘 안에 교복을 입은 학생들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성지순례참가자들이 들어가 좁은 자리를 메웠다.

중간 중간 학생들의 공연이 있었다. 태권도도 하고 인도 전통 민속춤도 추고 또 각 학년마다 노래를 부르며 간단한 손 유희를 했다. 수자타아카데미 아이들의 실력이 뛰어나서 근방에서 초청을 받기도 한다. 우등상, 개근상 받은 학생들이 나가서 상을 받았다. 우등상은 메는 가방, 개근상은 여름모자였는데 모두 후원품인 듯 했다. 내가 앉

아 있는 자리 옆에 앉은 학생들을 지켜보았더니 우등상 상품으로 받은 가방의 비닐포장을 풀어서 가방만 살짝 꺼내 보고 다시 넣고는 테이프까지 고이고이 붙이는 것을 보고 나 어릴 때를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수자타아카데미 개교기념식을 보면서 눈물이 났다. 만약 학교가 없었으면 그렇게 단정하게 교복을 입고 멋진 문화공연을 하는 아이들이 내가 여행길에서 수없이 만나는 저지 아이들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유미죽, 뿌리, 사부지, 카레 등의 인도식 식사를 하고 마을 방문했는데, 우리가 본 집은 기술자의 가정이니 중간 정도 사는 집이라는데 흙바닥에 나무 침대 하나, 그릇은 스테인레스 항아리와 접시 몇 개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물이 없어서 잘 씻지를 못한다고 했고 우물은 깊고 좀 위험하고 더러운 느낌이었다.

저녁에는 공사 중인 기숙사와 지바카 병원을 둘러보았다. 나는 인도에서 결핵에 걸린 한 사람이 완치될 때까지 약과 음식을 주는데 필요한 돈이 우리 돈으로 15만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돈의 가치가 커지는 것에 놀라 작년부터 후원회원이 되었다. 지금은 84명의 결핵환자를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그날 밤 부처님이 고행하신 전정각산에 보름달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저녁을 먹다 말고 모두들 환호성을 질렀다. 나는 등계스와리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수자타아카데미가 계속 희망이 되길 간절히 빌었다. 오늘 서울에 뜬 정월 대보름달을 보면서 그 소원을 다시 한번 빌어본다.



모든 행사가 진행된 수자타아카데미 오픈 강당

아름다운 세상, 즐거운 나

- 제 4차 청소년 워크 캠프 참가기 -

지난 2월 13일부터 2월 27일까지 14박 15일간 일정으로 제 4차 청소년 워크캠프가 인도 수자타 아카데미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워크캠프에는 총 21명의 청소년이 참가하였는데 그 중 몇 명으로부터 들어 본 소감을 회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한다.



자그디스푸르 플랫폼 앞에서

김하나 (태장고등학교 1학년)

비행기로 거의 하루가 꼬박 걸려 도착한 인도의 켈커타에서 제일 먼저 나를 반긴 것은 희뿌연 먼지와 안개 그리고 숨 막혀 오는 공기였다. 첫 날은 켈커타에서 보내고 다음날 동계스와리행 기차를 타고 가야역에 도착, 다시 학교로 들어가는 트럭을 타고 시골 마을 같은 동네를 지나고 난 후에야 드디어 수자타아카데미에 도착할 수 있었다.



수자타아카데미는 작은 분교 정도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생각 보다 엄청난 규모에 놀랐다. 심지어 교복까지 깨끗하게 차려 입은 학생들을 보니 과연 내가 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 까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유치원 벽화그리기 태어나서 처음 보는 큰 도화지에 달랑 도면만 보고 똑같이 그리라고 한다. 불가능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생각 외로 꽤 괜찮은 그림이 나왔다. 멋진 그림을 완성하고 나니 모두가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았다.

샤워장 만들기와 **마을 드레싱** 샤워장을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었다. 다들 너무 지쳐서 모바일 드레싱(머리 감기기)을 나가기 힘들었지만 웃는 아이들을 보니 또 새로운 힘이 솟는다.

더 많은 아이들을 씻겨주지 못한 것이 아쉬웠고 힘든 샤워장 미장일을 해 보니 우리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아빠의 사랑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플랫폼 만들기와 **예체능 교육** 예체능 교육을 하면서는 좀 더 리더십을 가지고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싶다는 생각으로 나태해지려는 나를 더욱 채찍질했다.

떠나는 날은 그곳 친구들과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지만 좀 더 성숙해지고 조금 더 배우고, 세상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다시 올 것이다.

유대인 (실상사 작은 학교)

수자타아카데미는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너무 좋은 곳이었다. 12년 전 처음 학교를 세웠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궁금하기도 했다.

벽화그리기, 미장하기 등등 모두 처음 하는 일이어서 힘들기도 했지만 하면서 뭔가를 배우고 남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니 기분도 좋았고 재미도 있었다. 특히 모바일 클리닉에 서는 다른 사람들의 아픈 곳을 치료해 주고 더러운 곳을 씻겨 주고 찢어진 옷을 꿰매 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니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다.

체육대회 후 있었던 마을 방문 때는 캘커타에서 마련한 인도 옷을 입고 마을 리더들의 집을 방문했다. 리더들이 너무 친절하게 맛있는 것도 주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려는 마음이 예뻐다. 몇몇 수자타 친구들과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꼭 지키고 싶다.

수자타에서의 생활이 힘든 점이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잘 지내다 가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 너무나 뜻 깊었던 캠프였고, 즐거운 날들이었다. 나중에 장기봉사도 해보고 싶다. 캠프 참가자 모두 잊지 못할 것이다.

김지에 (태장고등학교 1학년)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다. 우리가 인도에 와서 해 준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오히려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프로그램을 위해 학교에 나와 준 수자타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작업장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을 때 나는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다. 유치원 벽화를 보면서 벽면에 쓰여진 캠프생들의 이름을 보면서 '아, 우리 21명이 모두 해냈구나' 하는 일종의 성취감을 느꼈다.

힘든 일도 즐거운 일도 많았다. 아픈 만큼 성숙해 진다고 했듯이 우리의 인도 워크캠프 생활에서의 추억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도와주러 왔다가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고 가는 나라 인도. 그리고 수자타아카데미...

어쩌면 교과서나 학교에서의 배움보다 실제 경험을 통해 더 깊고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운 것 같다. 내 마음 속에서 가뭄에 단비를 내려 준 것 같은 수자타아카데미와 캠프 진행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두르가푸르 유치원 벽화 그리기



두르가푸르 유치원 사위장 공사



모바일 드레싱 목욕시간

아픈이들의 고통이 나의 아픔으로

- 박지나 JTS 해외사업본부장과 함께 -



지난해 12월에 북한의 의료상황을 둘러본 후, 본격적인 의료지원 준비에 한창인 박지나 해외사업본부장님을 만나보았다. 그동안 파키스탄으로, 아프간으로, 인도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어디라도 한달음에 달려가는 분인지라 차 한잔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엄두도 못냈었는데 의료장비를 구하느라 지방을 오가는 바쁜 일정 중에 잠시 소식지팀과 소중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는 개인적인 소감을 많이 들어서 일까 훨씬 따뜻하고 가깝게 느껴지는 박지나 해외사업본부장님께 북한의 의료지원소식을 들어보자.

마취약이 없어 그냥 수술을 하는 상황

라선지역에 의료기관이 총 50여 개 있는데 그 중 14군데의 진료소와 병원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 소감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현재 북한의 의료상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진료소 뿐 아니라 크다

고 하는 병원도 난방조차 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고, 기계나 수술도구는 물론 기초적인 약품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청진기마저 마모되어 쓸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의사는 있으나 의사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의사들이 산에서 약초를 캐서 약을 만들던지 병원앞에서 약초를 재배해서 쓰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병원을 둘러보고 무엇을 지원해야 할 지 조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과 인터뷰도 하고 주민수, 세대수, 주된 질환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약품, 기구들을 파악했는데, 만난 의사들은 하나같이 초음파, 내시경 등의 의료장비와 수술도구 및 붕대, 반창고, 소독약 등을 꼭 지원해 달라며 저를 붙들고 몇 번이나 사정을 했습니다. 마취약이 없어서 그냥 수술을 하는 상황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라선지역은 평양 다음으로 상황이 괜찮다고 하는데도 그 정도니 다른 지역은 얼마나 열악한지 가히 짐작이 되지요.

내가 아프고 나니 그들의 고통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에 갔을 때 허벅지에 종기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별레 물린 줄 알고 약을 발랐는데 갈수록 붓더니 2~3일이 지나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손도 못댈 정도로 아팠어요.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팠어요. 갈수록 구멍이 커지고 손가락 깊이 만큼 훑아 있었어요. 너무 아파서 손도 못댈 지경이 되어서야 인도 지바카 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마취를 네군데나 했는데도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평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던 종기 하나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고 나니 당시에는 무척 힘들었지만 느낀 게 참 많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파 본 경험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아파서 고생을 하고 나니 그동안 저의 모습이 많이 돌아봐졌습니다.

지난번 지진피해로 파키스탄에 갔을 때 병원에서 사람들이 신음하고 누워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었지만 내 가슴으로 절절히 느끼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지원 활동을 하면서 고통받는 인민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

잡긴 했지만 가슴으로 절절히 느끼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 갔을 때도 아이들이 지바카 병원에서 치료받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괴울까, 얼마나 아플까’ 하고 측은한 마음은 들지만 절절히 느끼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눈물이 나도록 아프고 나니 그 사람들의 마음이 헤아려지고 그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서 고통스러우면서도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동안 내가 봉사활동 한다고 했지만 진정으로 가슴으로 느껴본 적이 있는지, 물론 내가 눈물을 흘리고 측은한 마음으로 연민의 정을 느끼긴 했지만 내가 아픔을 느끼듯이 저 사람들의 아픔을 피부로 느껴봤는지 되돌아 봐지면서 이것이 좋은 경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북한에 보내는 의료 기기와 약품을 찾으면서 제 마음 씩씩이가 달라졌습니다. 마음으로 구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돈도 돈이지만 어떤 기기를 보내야 이 사람들이 고통을 덜 받을까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상처가 심하고 안 좋아서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이 근방에 종기를 봐주는 병원이 없는거예요. 피부과, 정형외과, 내과, 병원이란 병원은 모조리 갔는데 안 봐주는 겁니다. 아예 볼 생각도 안해요. 그러다 연세가 많으신 원장님이 계신 병원에서 봐 준다고 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인도에서 수술하고 오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와서 수술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종기하나 때문에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가야 했겠죠. 그것도 빨리 되나요? 예약하고 며칠 기다리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나마 인도에서 수술하고 오니 아픈것도 덜하고 걸을 수도 있게 되겠죠.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 돈이 많아지고 병원이 많아지고 시설이 좋아졌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예요. 그래서 북한은 우리에게 크고 좋은 병원건물을 원하지만 우리



는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병원을 있는 자리에 그대로 두고, 필요한 부분만 보수하고 부족한 의료 기기와 의약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병원을 너무 크게 잘 해 놓아도 가난한 사람들이 병원 드나들기가 어려워요. 지금 있는 병원을 활용하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전부터 다니던 곳이니 정감 있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 병원이 멀면 인민들이 이동할 교통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택시가 있긴 한데 인민들은 택

시를 탈 엄두를 못 냅니다. 택시 한 번 타는 것이 한 달 치 월급보다 비싼데 누가 택시를 타겠어요? 환자를 리어카에 실어서 운반하기도 어렵구요.

그러니 읍마다, 시마다 있는 50군데의 기존 병원에 약과 필요한 의료물품만 지원하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만, 몇 십만 불을 들여 한군데 번듯하게 건물 짓고 잘 해 놓으면 남 보기에는 큰일을 한 것처럼 보여도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북한은 병원이 무상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실 무상이 아니에요. 약이니 주사기니 뭐니 필요한 것은 모두 환자가 직접 사가지고 가야하는 현실이에요. 병원에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즈나 반창고까지 다 환자 본인이 사 가지고 가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돈이 좀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구해서 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병원시설을 그대로 잘 활용하여 필요한 물품

을 우리가 공급해서 가난한 인민들이 의료혜택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나진·선봉지역에는 의사가 1명 있는 작은 진료소부터 의사가 150여 명이나 되는 큰 종합병원이 있는데 X레이, 심전도, 위내시경, 초음파, 고압멸균소독기, 산부인과 검진대, 수술도구 세트 등과 같은 고가의 의료장비는 큰 종합병원에만 지원하고 나머지 작은 규모의 진료소에는 청진기, 혈압기, 체온계, 주사기 등의 간단한 의료기구와 필요로 되는 모든 의약품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향후 북한 지원방안

우선 3월 안에 컨테이너로 북한에 의료기기와 약품 등을 실어 보낼 예정입니다. 그동안 북한에 제약이 많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올해는 투명성 있는 지원체계가 정착되리라고 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영양식 공장도 확대하고 의료지원, 유치원과 탁아소의 지원 등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유치원과 탁아소도 겨울에 무척 추운데 난방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가해보니 1, 2세의 갓난아이가 있는 곳은 좀 미지근한데 3세 이상 아이들이 있는 곳은 찬기만 가신 정도고 4세~7세까지 있는 방은 아예 냉골입니다. 그런 곳에서 아이들이 얇은 훌이불 하나 깔고 덮고 누워있습니다. 그래서 난방시설도 시급하고 석탄 등도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위한 이불, 파카, 신발, 털신 등과 약기, 문구류 등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북한이라는 곳이 국제사회에서도 워낙 폐쇄적인 곳이라 지원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방문할 때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접하며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 시급함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제가 북한에 처음 들어간 것이 2002년 4월이니 4년여 만에 본격적인 의료지원이 이루어지게 된 셈입니다. 보다 빨리 지원되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은 남지만 그래도 이로인해 아픔 속에 신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래봅니다.

취재·정리 | 양윤덕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

이보은 | 제3차 필리핀 선재수련 참가자



분쟁지역, 종교 갈등, 총, 18km 낭떠러지, 거머리, 산길내기, 비 등등

가서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필리핀에 가기 전날에도 고민을 했다. ‘정말 내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비싼 돈 들여서 가지 말고 아르바이트나 할까?’

무수한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필리핀으로 향했다. ‘일단 해 봅시다’를 새기면서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하려고 노력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오늘(1월 31일, 한국으로 오는 날)이 실감이 나질 않는다.

필리핀에 도착해서 마닐라 법당에서 거머리를 걱정하며, 다시 민다나오 섬으로 가서 실리폰에서 알라완까지. 지금 생각해보면 불가능해 보이던 18km의 장정까지 해내고, 산길을 걷고, 발을 일구고, 우물을 파고, 18km를 무거운 배낭을 메고 알라완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감정은 신기함이었다.

커다란 바위 위에 꼬마 아이들과 어른들이 똥나우(필리핀어로 ‘춤’의 뜻) 자세로 모두들 쭈그리고 앉아서 우리들을 쳐다보던 그 눈빛들을 잊을 수가 없다. 마을에 학교 지을 목재로 우리의 숙소를 만들어 주고, 우리의 짐들을 옮겨주고, 항상 음식 준비할 때 불을 지펴주고, 마을 사람들의 말없는 배려는 끝이 없었다. 그리고 거의 매일 똑같은 일상이었다. 4시 30분에 기상하여 예불 드리고, 밥을 먹고 산으로 가서 길을 내고 와서 점심을 먹고, 거의 작업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똑같았던 하루는 단 한 번도 없었다. 한국에서는 똑같은 일상에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냈다면, 이곳에서는 똑같은 일상 속에서 느끼는 다름의 연속이었다.

그동안 ‘우리가 이곳에 와서 무슨 도움이 될까? 오히려 폐만 끼치는 건 아닐

마을 어린이들이 우리를 신기하게 쳐다봤다.
마을에 외부인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까?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긴 하지만 내면적으로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진짜 변할 수 있을까? 등등 오만가지 느낌과 감정을 경험했다.分別심이 나기도 했고, 짜증나고 게으름을 피우기도 했다. 하지만 깨어있고 알아차리기 위해 노력했다. 마음나누기와 인생나누기를 하면서 내 마음을 정리하고, 절대 말할 수 없을 것 같던 아픈 상처들도 살살 보듬어 갔던 것 같다. 그리고 정말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싶고 좀 더 겸손해졌다. 정말 꿈같은 작업을 마치고, 아주 많은 생각이 들었다.

가난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머리로는 이해했으나 마음으로는 사실 동정의 마음도 있었다는 것도 깨달았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눈빛의 마주침 하나로도 충분히 친구가 되었고, 마음이 통함을 느꼈다.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순수하고, 정 많고, 배려심 깊은 사람들은 처음 본다. 그 속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받았다.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들이 모두 소중하게 느껴진다. 항상 젖은 옷과 신발을 신고 작업했던 일, 거머리에게 물린 일, 비누로 머리감은 일, 새벽 4시 반 기상, 그릇 닦아 먹은 일, 삽질, 곡괭이질 한 일, 식사당번으로 고생했던 일, 불 지피며 눈물, 콧물 흘린 일, 마음 알아차린 일, 마음 나누기, 인생 나누기, 分別심 살피기, 좀 더 자유로워진 일, 다른 문명, 문화, 나라, 사람, 환경, 다름에



작업에 나가기 전 마을사람들과 기념촬영



마을로 올라가기 위해서 18Km가 되는 산에 올라야 했다



제3차 필리핀 선재수련 알라원 숙소, 방 2칸, 창고 1칸, 10평 남짓한 공간. 마을 사람들이 직접 지었다고 한다.

대한 생각의 변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것, 아이들 눈망울에 내 얼굴 비춰보기, 손 마주잡기, 철수와 윌리엄의 눈물, 별빛 아래에서 춤추기, 정말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이 많지만 마을 사람들이 가장 뇌리에 박힌다. 마을 사람들의 가식 없는 순수한 배려와 아름다운 웃음이 사람들에게 잘 열지 못했던 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게 한 것 같다.



마을로가는 길에 잠시 휴식 중



공양간, 매끼나마다 나무로 불을 지펴야 했다. 마을 사람들이 불 피우는 것을 항상 도와주었다.

일명: 눈물의 공양간



밭 가는 작업 도중



미국에서 날아 온 사랑

김순영 | 워싱턴JTS 자원활동가



워싱턴에서 후원받은 영어동화책을 수자타아카데미에 전달하고 있는 장면

인도성지순례 일정이 나오자 미국에서도 단체로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한국의 실무자들과 함께 협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도 수자타아카데미에서 실무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혜원님으로부터 수자타아카데미 학교 도서관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어동화책, 그리고 교사용 교재, 어린이용 영어 교재 등이 필요하다는 메일이 왔습니다.

JTS 인도성지순례에 참가할 경우 인원이 많으니, 인도JTS 지바카병원에 필요한 의약품

과 기타 인도JTS에 필요한 물품을 모아서 갖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정토회를 비롯하여 뉴욕정토회, 필라델피아의 원성희님, LA정토회, 콜럼버스정토회 총무님들께 협조를 부탁 드렸습니다.

필요한 것이 영어책이라는 말에 워싱턴정토회는 우선 영어 동화책을 모았으며 그 밖에 옷, 신발 모으기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Maryland Montgomery County의 Library of Friends에서는 미국JTS로 동화책을 일부 기증도 해 주면서 또 많은 양의 책을 아주 싼 값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윤시내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몇몇 분들이 동화책과 옷, 신발 등을 후원해 주셨지만,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콜럼버스정토회에서는 백과사전 한 질을 보내 주셨고, 뉴욕 및 필라델피아에서는 이번 성지순례에 참가하신 분들이 중심이 되어 교사용 교재, 어린이용 교재, 영어책, 문구류, 의약품, 속옷, 의류, 신발, 초콜릿, 사탕 등을 보내 주셨습니다. 이 물품들이 수자타아카데미에서는 귀중하게 쓰일 것들이라 생각하니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의 운영환님께서 많은 양의 어린이용 칫솔과 어른용 칫솔을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실무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먹을거리도 준비해 주셔서 다들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물품을 기증해주신 후원자님, 그리고 무거운 짐들을 이고지고 인도까지 운반하시느라 수고해주신 성지순례 참가자님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인도와 필리핀에서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니 아마도 영어동화책과 교재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로 미국JTS에서는 미국 각 정토회 지회와 연중 캠페인을 통해 우선적으로 책을 기증받아 인도와 필리핀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도나 필리핀 등지에서 필요한 물품 중에 미국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이곳에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란우산이 되어주세요

-필리핀 산사태 피해지원 거리모금 캠페인-

대학생 정토회



지난 2월 23일, 명동에서는 필리핀 레이터섬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어린이를 돕는 노란우산 캠페인이 있었다. 대학생 정토회와 서울정토회 회원들이 모여 JTS가 새겨진 노란우산을 들고 '집중호우로부터 필리핀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노란우산이 되어주세요~'라고 쓰여진 현수막을 내걸고 거리모금 캠페인을 펼친 거리풍경을 대학생 정토회 회원들에게 물어보자. 아울러 이날 모금액은 한국JTS를 통해 필리핀에 전달될 예정이다.

흥미미

머뭇거리며 시작하지만 함께하는 분들의 선한 마음과 즐거움이 나에게 전해져 조금씩 가벼워지며 어느새 정말 즐겁게 모금을 하는 나를 보게 된다. “주위에 있는 불쌍한 한국어린이나 도우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종종걸음치는 사람들, 혹은 무관심한 반응을 만날 때도 가볍게 넘기면서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반면에 모금활동을 부탁하는 말에 잔돈을 털어내면서 더 못드려서 죄송하다며 포장을 채 뜯지 않은 과자 상자를 안겨주려는 여고생을 만났을 때는 내가 저 나이였을 때 저런 마음을 가졌던가 반성도 하면서 고마움과 함께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 이런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들이 모아져서 필리핀 어린이들에게 전달되는구나. 이렇게 향기로운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를 하고 그 마음을 내가 모금함에 담고 있구나하는 생각에 더 가벼워지고 행복해졌다.

전혜연

가끔 그냥 지나치시거나 도움을 청하며 건네는 말이 느리게 느껴질 정도로 빠르게 걸어가는 분들을 보며 분별심도 많이 났지만, 그런 모습들 속에 그들과 닮은 나를 보게되어서 반성이 되었구요.

도움이 절박한 필리핀의 현장설명을 들으시고는 돈이 없어 은행까지 다

녀와 만원을 톡하니 넣어주신 분도 있으셨는데 너무 고마웠고 가슴이 짠해져 오더군요.

그렇게 많은 분별과 많은 감사함을 번갈아 느끼며 캠페인을 끝내고 함께한 도반들과 다같이 '죽향'이라는 단골집에 도착.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오르셨다던 멋진 주인 아주머니께서 고맙고 든든하다며 지원금 5만원을 보시하시고 맛있는 죽도 서비스로 듬뿍 주셔서 정말 맛있게 먹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누기하는 시간에는 기쁨 두배 감동 백배를 느끼게 해주는 여러사람들의 체험담이 있었고 그 가운데 많은 것을 배운 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경험을 가져다 준 오늘의 '노란우산 캠페인'.

참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모금을 시작하기 전 파이팅!



"서울 시민 여러분, 아직도 집중호우로 힘들어할 필리핀 주민들에게 노란우산이 되어줍니다."



모금함을 자신있게 내밀며, 노란 우산을 친절히 씌워주며... 명동거리는 노란 우산들로 가득찼다.



캠페인 후 식당에 모여 맛있는 저녁을 먹고 마음나누기를 하였다.

내 작은 보탬이 땀튀기 되는 곳

김호상 | 마산정토회 자원활동가



창원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김호상님 가족의 단란한 모습. 학교와 직장 문제로 잠시 가족과 떨어져 있지만 일과 생활 속에서 쉬지 않고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보자.

JTS를 제대로 알게 된 것은 작년 7월 ‘깨달음의 장’ 마지막 날 JTS가 인도와 북한에서 하는 구호활동을 비디오로 보면서부터였다. 그 비디오를 보고 나서 ‘내가 조금만 젊었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이런 단체를 알았다더라면 내 인생의 진로를 바꿀 수 있었을 것일’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그런데 때마침 작년 6월부터 5개월 동안 ‘북한은 내나라, 우리가 건설하자’ 캠페인을 통해 모금활동이 전개되었고 친구와 선배들에게 JTS를 소개하면서 나도 JTS 북한결연 후원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9월에 지금은 베스트셀러가 된 한비야씨의 긴급구호 활동 체험담을 적은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가 발간되었다. 오래 전부터 한비야씨의 열렬한 팬이기도 했기에 발행 전에 미리 주문하여 “함께 가요 우리” 라는 가슴 뭉클한 저자 서명이 든 책을 받아 단숨에 읽었다. 긴급구호의 현장이 생생하게 펼쳐졌다. 책 뒤에 부록으로 있는 구호 단체 소개에서 JTS를 보고는 반갑기도 하고 자부심도 느껴졌다.

내가 마산에서 거리 모금에 참여하게 된 날은 9월 27일 밤이었다. ‘북한은 내나라 우리가 건설하자’ 캠페인의 일환으로 10일간 전국에서 동시에 힘을 모아 모금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된 것이다.

모금활동에서 마산법당의 유애경 총무님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가볍게, 때로는 끈질기게, 그러나 항상 밝게 웃으며 모금하신다. ‘내가 한번 나가면 아이 하나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거의 매일 모금활동을 하시는데 나는 그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일단 나가서 ‘150원이면 북한 어린이에게 한 끼를 먹을 수 있어요’라고 시작을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편해지고, 모금 활동이 끝난 후에는 행복감에 젖는다.

‘참 좋은 사람 많구나.’ ‘그래도 세상은 살 만한구나.’

단순히 남을 돕는 모금으로 참여한 모금활동이 나를 내려놓는 연습도 하게 되고 나에게 힘이 되어 준다. 산업재해로 허리를 다쳐 치료 중인 내가 아는 한 형은 JIS를 보고 여기는 진짜배기 단체라고 격려해준다. 그러면 나는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서 이야기 한다. ‘모두가 자원 봉사를 하니 단체 운영지출 중 큰 부분으로 차지하는 인건비 지출은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귀하게 보낸 돈을 아주 효율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 경험 많은 활동기들이 온 힘을 쏟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무리 없이 해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우리 병원에도 작년 여름부터 통일 돼지 저금통이 있다. 그런데 매일 쳐다봐도 저금통 안에 변화가 없다. 안에 들어 있는 게 적어서 그런가 싶어 조금 더 차 있는 원장실 돼지를 앞에 두어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환자들 가까이에서 보이게 하기 위해 대기실 중간 위에 올려두고 홍보지도 붙였다. 이제는 저금통이 차는지 안차는지 신경을 덜 쓴다. 대신 내 저금통을 좀 더 열심히 채우려고 노력한다. 가끔씩 점심값도 아끼고, 택시 타고 갈 곳 버스 타거나 걷고, 비싼 외식 자제하곤 하니 건강도 좋아지고 낭비도 적어진다. 또 다른 장소에서 모금통을 보면 이전에는 무관심했는데 이제는 내 모금통처럼 느껴지고 반갑다.



마산 정토회 회원들과 아간에 거리모금을 마치고

JIS가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나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열어 주었다’는 것 같다.

인도지원사업

● 산티나가르 유치원 개원식



1월 13일 인도 산티나가르 마을 유치원 개원식이 현지 읍장과 성지순례객 및 마을 주민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산티나가르 마을 유치원은 청소년노동학교 학생과 마을 주민들의 협동으로 6개월 만에 훌륭하게 완성되었다.

● 수자타아카데미 개교 12주년 기념식



1월 14일 한국과 미국에서 오신 성지순례객 및 마을 주민 1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자타아카데미 개교 12주년 기념식이 오픈강당에서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도 전통 음악과 무용, 태권도 등 평소 같고 닷은 문화예술 솜씨를 자랑하였고 근면상, 우등상, 개근상 등이 1년 동안 수선수범하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에게 상품과 함께 수여되었다. 또한 문구류, 약품류, 의류 등의 후원물품 전달식이 진행되었다.

● 마을 주민에게 점심 공양



멜리볼자회의 신정희 불자님의 보시로 1월 26일 건국기념일을 맞이하여 기근으로 겨우 끼니를 이어가고 있는 마을주민 1200여명에게 점심공양을 올렸다.

● 이사장 법륜스님 유치원 및 마을 방문



1월 24부터 29일까지 법륜스님을 비롯한 한국 JTS 일행 7명이 교육사업 및 마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동계스와리 사업장을 방문하였다. 방문 결과 심각한 식량과 식수 부족 상황을 파악 한 후 우선 펌프 및 우물 설치를 지원하기로 하고 빗물을 저장할 저수지의 보수를 제안하였다.

● 청소년노동학교 및 수자타기술학교 첫 졸업식

2002년도 개교한 청소년노동학교의 첫 졸업식이 1월 28일 진행되었다. 총 11명이 졸업을 하였는데 모든 졸업생들에게 졸업선물로 건축 작업도구와 저축금이 지원되었으며 전원 제이티에스 공사장

에 취직되었다. 2003년 개교한 수자타기술학교의 첫 졸업식도 함께 진행이 되었는데 총 6명이 졸업을 하였고 이들에게도 저축금이 선물로 주어졌으며 이들은 모두 한국 기업에 취직되었다.

● 수자타아카데미 새 학기 시작

수자타아카데미와 유치원이 2006년을 맞이하여 신입생 선발과정을 마치고 새 학기에 들어갔다. 수자타아카데미는 신입생이 187명으로 총 학생수가 636명이 되었고, 유치원은 17개 마을에 신입생이 345명으로 총 1809명이 되었다.

● 수자타아카데미 교장 이취임식



1월 28일 수자타 아카데미 교장 이취임식이 있었다. 2000년 7월에 교장에 취임했던 뿌리안카님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교장에 스위티님이 취임하였다.

● 전 수자타아카데미 교장 뿌리안카님 한국에 오다

뿌리안카님은 한국어 연수와 정토회 및 한국JTS의 활동 이념과 방식을 연수받기 위하여 2월 16일 한국에 입국하였다. 한국에서의 교육은 약 3년 정도 진행될 예정이며 본인의 훈련과 후배 양성을 위한 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교육을 통해 뿌리안카님이 자립적으로 인도 사업을 진행할 수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 수자타아카데미 기숙사 기공식



한국JTS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현대자동차로부터 인도 수자타아카데미 기숙사 건축을 위해 2억원을 지원받았다. 이 지원금으로 건축될 수자타아카데미 기숙사 기공식이 지난 1월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방과 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 공부할 수 없었던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기숙사가 제공되기를 기대해 본다.

● 삼소회 회원들 수자타아카데미 방문

2월10 여성수도자들(비구니 스님, 수녀님, 교무님)의 모임인 삼소회 회원들로 구성된 성지순례팀의 수자타아카데미 방문이 있었다. 삼소회 회원들은 수자타아카데미에서 JTS사업 및 활동소개를 듣고 사업장을 둘러보았다. 또한 학교 지원금 및 마을 지원금으로 \$6,000을 후원해 주고 JTS의 활동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였다.

기타사업 소식

● 필리핀 제3차 대학생 평화캠프 진행

필리핀 민다나오의 알라원에서 제3차 대학생 평화캠프가 진행되었다. 총 11명이 참가한 이번 캠프에서는 알라원 주민들과 함께 마을 산길공사를 진행하였다. 알라원은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어



사람이나 물자의 이동이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이번 산길 공사로 마을 주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공사는 알라윈 주민 뿐 아니라 인근 실리폰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였다.

● **아프가니스탄 카불지역 식수지원 프로그램**
아프간 JTS에서는 2월 카불의 빈민촌인 코탈지역의 300가구에 식수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오랜 전쟁으로 식수공급이 어려웠던 카불지역의 빈민촌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식수를 공급하게 되었다. 이번 사업은 아프간 JTS의 스웸인 하심씨가 책임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며 총 3개의 물탱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소식

● 재일코리아청년연합 송승재 대표 방문



재일코리아청년연합 대표이신 송승재님과 김봉양님의 2명의 JTS 사무실 방문이 있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북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후원금을 전달해 주셨다. 일본에 살면서도 북한동포를 위해 애쓰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정읍 폭설 피해 복구지원



1월 12~14일까지 광주정토회 자원봉사자들은 폭설 피해지역인 전북 정읍시 덕천면 4개마을 10가구를 방문해 비닐하우스 철거, 보일러 설치, 방문 달아주기 등의 자원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장갑 2,500 켤레, 마스크 200개를 피해주민들에게 전달하였다. 어려운 사정을 알고 긴급하게 도움을 주신 광주정토회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 경북 문경시 가은읍 마을 주민에게 라면과 보리건빵 전달

1월24일-25일 경북 문경시 가은읍 마을의 어려운 주민에게 라면 1상자를 지급하고 마을회관, 경로당, 불우이웃 8곳을 직접 방문해 라면과 보리건빵을 전달했다. 이번일은 문경정토마을의 지장법사님과 손병기님, 김승정 부장님이 수고해주셨다.

● 인도에서 오신 장영주국장 보고회



2월16일 인도 JTS 장영주국장의 인도 사업보고회가 진행되었다. 인도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상세한 보고와 더불어 앞으로의 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학교, 병원, 마을개발로 분류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 듣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보고회 후 질의 응답시간을 가진 후 한국에 막 도착한 뿌리양카님과 이수진님의 소개와 인사가 이어졌다.

● 후원물품 전달식



수자타아카데미 개교 12주년 기념행사 후반부에 국내외에서 모아주신 후원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의약품과 문구류, 원단, 의류 등 기업과 개인, 정토회 JTS후원회원분들이 정성껏 모아주신 물품 50박스 이상을 JTS사업장 견학으로 수자타아카데미를 방문한 인

도성지순례단이 전달했다. 미국에서 동참하신 후원회원들도 교재와 약품 등을 함께 전달했다.

● 유앤드림(주)의류지원

유앤드림(주)에서 바지류와 속옷류, 점퍼류 등 12,000여점(총 2억8천5백만원 상당) 이상 되는 의류를 기증해 주셨다. 의류를 종류별로 분류하여 포장해 주셨고, 울산에 위치한 구호창고로 옮기는 운송비도 부담해 주셨다. 유앤드림(주)과 연결을 해 주신 분은 김상표님과 정리를 도와 준 대학생 정토회 회원들께 감사드린다.

소리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리모금
우리 함께 해요!

거리모금이 전국에서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산에서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되고 있고, 서울에서도 매주 수요일 남부터미널역에서 거리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

서울정토회 복지부
02-587-8753

라진·원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6년 2월 15일 현재



라진·선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6년 2월 15일 현재



* 회색으로 채워진 곳은 현재 지정탁자가 없는 곳입니다. 위의 유치원·탁아소에 지정해서
후원해 주실 분은 연락주세요.

* 단체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은 새롭게 후원해 주신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돼지저금통 후원금 현황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1월 31일까지



● 광주

김창수 17,420 정상일 32,380

● 대구

김경민 6,160 김영균 21,040 김유미 6,350 김지향 17,060 김현경 6,190 김현자 72,570 남외순 17,190 무명 17,000 무명6개 32,830 박영조 13,450 박정선 21,170 손경희(수미광) 84,000 안춘옥 31,400 윤문사 13,940 윤문사 35,870 윤석희 29,180 윤여영 13,000 윤채희 26,000 이소옥 144,060 이정수 20,080 조옥분 32,980 진미숙셈제자 43개 302,220(김경신 9,450 김미나 3,660 김승목 7,810 김지원 19,040 무명 9,570 무명 1,780 무명 1,250 무명 260 무명 8,840 무명 2,450 무명 4,560 무명 6,320 무명 25,100 무명 2,150 무명 16,700 무명 1,650 무명 8,760 무명 1,690 무명 2,980 무명 7,460 무명 4,800 무명 2,960 무명 11,450 무명 6,970 무명3개 19,660 무명4개 21,260 무명4개22,780 박정민 10,300 서미진 2,740 안형명 6,090 이소은 21,950 전찬연 14,980 지은1,020 최태경 6,380 홍혜정 7,400 청안사 11개 226,990(권순음 22,280 김민서 3,890 김연희 5,010 무명 56,350 변석준 20,050 손애란 1,010 손희경 9,700 심지연 18,640 이재하 47,490 진수호 18,270 채성기 24,300) 채정기 47,950 최홍곤 16,660 최창주 28,530

● 대전

길금옥 16,970 김낙훈 27,740 김미경 2,960 김반야솔 77,410 김상원 10,010 김성목 3,620 김종복 17,320 김주순 22,520 김창근 23,060 김찬연 23,110 김태풍 27,750 김현수 22,470 김희정 22,900 꼬꾸마시 4,100 무명 4,980 무명 18,910 무명 2,480 무명 36,500 무명 2,750 무명 1,480 무명 4,110 무명 4,090 무명 17,020 무명 23,300 무명 23,480 무명(4) 93,600 박덕순 2,980 수정문구 19,210 유기숙 20,290 유기숙 22,130 유인자 19,590 이정미용실 21,280 이정선 13,320 이정숙 22,740 이정진 17,490 이지현 22,790 이창화 38,200 정규희 21,660 중원초교 4,830 중원초교 17,450 중원초교 10,100 중원초교 11,150 중원초교 15,170 중원초교 6,250 최봉근 17,630

● 동래

강가령 21,500 강동현 29,600 강동현 28,860 강민정 17,550 강순옥 17,930 강영순 37,710 김순옥 49,480 류진수 83,590 무명 17,970 무명 43,260 무명 30,370 무명 12,670 박태준 23,900 법문주 80,980 심지희 207,700 임호 25,570 정정남 10,300 정정남 11,560 정정남 6,080 최은아 14,490 하복 초1-3 86,140

● 마산

김지훈 8,300 김지훈 16,850 김현미 23,000 마산원협33번 28,250 마산원협중매인6번 7,310 무명 36,030 무명 32,420 무명 12,510 무명 9,920 무명 85,700 무명 16,750 문수행 21,800 박경섭 18,060 박미성 8,000 박현미 3,050 스페이스게임랜드 35,070 시장슈퍼16,150 신세권 42,040 안상욱 20,200 안태선 28,100 영남상회 28,620 원협 7,930 원협6번중매인 5,320 윤원중 34,100 윤인숙 21,080 윤인숙 20,080 이진용 2,800 전예은 2,810 정영숙 27,640 정원희 41,000 정원희 12,340 조근영 20,000 종출 16,800 천영희 16,010 하치근 24,530

● 서울

가주초등학교 309개 1,777,730(강다연 11,120 강민규 8,990 강수진 4,590 강아름 1,770 강아민 28,690 강연지 6,920 강유식 11,720 강지원 2,530 강훈 3,490 고용식 2,180 공준하 5,220 공혜미 17,660 구건모 7,850 구민경 12,070 구지현 9,850 구필호 4,330 권누리 1,220 권수범 4,430 기민지 14,690 김가영 5,870 김가정 2,470 김나경 8,150 김다희3,240 김동주 3,280 김민경 4,810 김민기 1,920 김민기 4,890

통일돼지저금통 후원금 현황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1월 31일까지



김민선 3,870 김민예 7,940 김민지 19,980 김선 10,450 김선현 6,000 김성호 11,010 김소리 4,240 김소안 530 김수희 3,050 김연수 8,540 김영록 3,850 김예민 3,240 김응우 1,770 김유경 990 김윤지 4,030 김이현 5,650 김인구 1,010 김인지 3,970 김재인 2,750 김정렬 6,030 김정주11,480 김종철 3,930 김주현 3,620 김준영 4,090 김지운 6,110 김지하 440 김지현 6,210 김진수 6,740 김진아 16,950 김진욱 4,650 김진희 20,890 김철호 4,870 김충수 1,610 김태연 2,360 김태연 1,280 김태화 2,010 김하민 2,920 김현서 5,550 김현욱 1,640 김효수 1,360 김희정 4,510 남궁란 3,700 남궁수연 1,570 남기일 22,100 남용환 1,300 남화연 1,160 노상훈 4,230 노예은 10,390 류가영 4,870 류보리 1,810 류승호 17,030 류우영 3,510 무명 5,260 무명 3,990 무명 240 무명 10,970 무명 2,540 무명 5,070 무명 5,680 무명 2,400 무명 3,560 무명 1,500 무명 8,650 무명 3,570 무명 6,250 무명 2,110 무명 5,400 무명 1,570 무명 17,600 무명 4,180 무명 5,950 무명 1,770 무명 11,280 무명 6,010 무명 45,000 무명 12,790 무명 4,310 무명 5,530 무명 1,920 무명7,210 무명 5,620 무명 4,040 무명 1,390 무명 4,750 무명 1,980 박기훈 12,060 박말선 23,610 박상섭 1,710 박상원 1,180 박소연 7,080 박아영 5,870 박연준 3,410 박재범 900 박정수 4,940 박정훈 4,440 박종훈 2,420 박주용 2,810 박준현 5,210 박지선 5,790 박진우 3,880 박찬울 5,350 박태준 6,720 박태환 3,750 박효진 1,870 전주 안 7,960 백영준 7,780 변영지 11,420 서동원 3,260 서동현 16,080 서상현 4,460 서영서 1,890 선우 2,270 설영훈 4,300 성기현 2,870 성예원 4,270 소근영 1,670 손해민 1,800 송명준 10,190 송선진 14,700 송재은 10,050 신명근 1,610 신상원 21,370 신원준 13,990 신재 청 3,400 신정은 1,190 심소연 1,470 안다혜 3,300 안형준 1,970 안혜리 23,150 양소연 3,230 양혜주 6,490 엄희진 9,430 오성준 11,970 오승준 2,660 오승혜 6,310 오영록 630 오우진 5,570 오지혜 8,910 우정하 7,310 원예은 2,150 원혜림 1,590 유선호 16,710 유일선 5,690 유자연 4,740 유정수 15,730 유정완 6,100 유지숙 2,810 유진희 3,400 윤 정 3,110 윤경진 350 윤다솜 1,370 윤서경 5,300 윤소정 6,100 윤여현 5,490 윤영민 1,360 윤정민 6,000 윤지원 3,870 이경아 3,350 이근주 6,460 이기강 3,750 이다만 6,400 이다은 320 이덕현 840 이동찬 11,080 이명훈 2,080 이상우 2,710 이상영 9,670 이선진 2,810 이서민 3,700 이성중 9,450 이성지 10,920 이승미 5,900 이수광 2,520 이수연 4,240 이수현 3,130 이수희 500 이승민 4,540 이승섭 2,360 이승재 2,530 이승환 3,200 이어진 1,170 이영은 5,600 이예은 3,220 이용희 1,170 이우진 6,250 이우진 1,190 이윤정 3,160 이윤지 7,920 이은규 10,650 이정호 3,160 이종찬 1,860 이주현 9,300 이진우 14,360 이진호 7,280 이창석 6,530 이재현 1,400 이추희 10,220 이태호 5,180 이하민 7,500 이혜진 840 이호재 2,190 이화은 2,140 임도형 9,570 임של론 12,560 임지원 6,160 장민수 6,500 장석준 5,030 장인희 2,560 장중화 9,710 장하니 5,650 장한익 16,820 장효은 3,730 전신영 4,280 전자윤 710 전준업 1,300 전지연 4,800 정경은 8,270 정동민 4,410 정민섭 2,560 정소연 8,890 정연재 4,950 정용준 3,500 정인경 4,990 정재은 9,230 정종은 5,920 정지원 15,200 정태욱 4,150 정혜원 6,310 조기민 2,240 조서현 4,160 조수민 4,460 조영민 3,490 조윤진 1,800 조은혜 3,120 조준하 14,650 조형민 6,250 조흥래 2,810 주영옥 8,090 주현호 3,930 지명진 2,000 지수희 1,840 지승아 3,240 지영도 4,860 진다훈 7,550 차유진 670 차정훈 3,820 채승재 1,020 채현아 4,300 최명규 2,840 최새미 5,500 최소영 4,480 최수영 5,500 최아영 4,470 최엄지 2,190 최연수 4,830 최유정 4,670 최윤정 7,520 최은선 1,910 최은영 10,460 최정민 8,690 최치수 1,870 최지윤 5,600 최희경 550 하재민 1,510 하준영 8,470 한다연 8,000 한민지 740 한상진 3,610 한송이 4,460 한예슬 3,330 함선우 6,550 함태욱 8,140 홍동진 3,680 홍사현 6,040 홍아민 9,630 홍은화 5,660 황규현 2,010 황세현 2,710 황연경 1,450 황윤정 12,580 황재하 4,380 갈현초등2-1 20,000 갈현초등6-4 21,910 강유식 29,380 강유신 16,550 강희석 151,750 광봉준 28,860 김경자 37,400 김대희 14,710 김대희 5,230 김명자 19,450 김성주 17,860 김승주 19,130 김을하남 19,820 김중현 27,320 김태교 20,410 김태교 18,520 김태기 20,550 김희태 18,340 남정근 18,970 동국대학병원 19,100 동국대학병원 17,880 동국대학병원 16,500 동국대학병원 12,270 동국대학병원 21,300 동국대학병원 14,300 동국대학병원 16,860 모금실 37,010 무명 5,080 무명 17,370 무명 25,810 무명 37,900 무명 45,620 무명 18,380 박세경 4,270 박은선13,800 법전 57,900 변영희 12,980 복정숙 3,380 송봉근 4,740 송정원 22,010 송희숙 18,040 안성근 6,630 유통공사3층 9,560 윤인혜 13,300 윤지현(부산반안초등) 5,080 윤희순 38,810 이영미 18,000 이장산 11,800 이재숙 36,500 이종례 15,180 임숙이 39,560 장호륜 3,170 정윤한 70,000 정윤한 30,000 정호준 3,050 조인숙 16,990 조정휘 29,580 차새미 15,050 차호영 20,630 청담중 22,570 청담중1-6 10,320 최가연 7,580 최원석11,100 최유찬 17,390 최은별 22,000 한형구 4,410 휘

통일돼지저금통 후원금 현황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1월 31일까지



미리마트 15,130

● 울산

김경희 32,170 김일윤 29,170 무명 16,210 무명 24,880 무명 9,630 박성영 19,980 안수용 34,820 엄판선 18,400 유영순 18,020 임두리 23,500 임영숙 24,160 최예린 30,780

● 정읍

동신초등학교5-7반 14,490 장은진,장서경 40,850

● 제주

강상희 22,750

● 제천

강소영 9,490 무명 7,810 박영숙 39,270 박정순 18,210 손영주 7,180 손태환 7,940 유다인 20,950 유동욱 20,260 이미연 14,160 제천법회 39,000 한살림 8,580

● 청주

강순희 41,520 김영국 22,150 김재산 84,220 김지현 15,690 양창순 23,270 유동연 44,350 윤동수 48,240 윤학수 21,650 이나경 21,830 이은선 25,080 장승희 36,650 청주법당 27,400 최성진 22,900 최용석 29,390 하나로은행 7,290 황경주 25,740 황연주 16,270

● 해운대

김동명 11,370 김민상 16,050 김민주 17,130 김혜숙 21,800 김혜숙 18,650 김혜숙 18,170 노효원 23,570 무명 23,320 무명 30,070 무명 30,900 무명 41,010 박정아 21,430 손한목 13,070 유승호 19,680 이문숙 17,810 이수진 15,110 **인지초등학교2-5반 32개 215,360**(강도위 8,200 고다희 6,640 권보경 4,220 김건우 8,450 김도현 1,600 김민규 5,810 김상은 7,090 김윤아 2,190 김진희 2,620 김혜원 2,690 무명 11,960 무명 15,350 무명 1,470 무명 5,580 무명 4,180 무명 6,990 무명 9,320 무명 7,160 문가덕 5,590 박지훈 950 손성진 3,680 손주원 11,400 손진우 3,500 양진혁 6,220 이상호 10,230 이우리 6,310 장혜원 6,270 조수환 6,100 조재란 2,040 조홍현 12,380 최혜지 13,870 허세봉 15,300) 장진영 22,640 정혜경 20,430 최우정 12,040 최재원 7,870

● 독일

독일정토회 4개 2,279,823(류동수 24.70Euro 박정숙 198.57Euro 정길순 71.50Euro 최정철 27.44Euro)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1월 31일까지

거리모금 현황

대구 943,760 대전 572,670 동래 650,570 마산 5,234,990
서울 1,184,460 울산 116,200 청주 288,250 해운대 1,536,050

신규회원(개인,단체)명단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1월 31일까지

인도후원회원

| | | | | |
|----------|----------|--------|----------|---------|
| P0008015 | 강 상경 | 회애분 | P0002456 | 김 영자 |
| P0015611 | 국 권오 | 분매연 | P0016008 | 김 갑자 |
| P0007744 | 권 복서 | 연호 | P0009829 | 김 자옥 |
| P0010922 | 김 옥성 | 응숙 | P0015610 | 김 재태 |
| P0015376 | 김 인정 | 숙애 | P0008240 | 김 태운 |
| P0009665 | 김 박연 | 루진 | P0016110 | 노 강희 |
| P0010683 | 김 송경 | 성화 | P0014590 | 류 근성 |
| P0015407 | 김 송지 | 연미 | P0012390 | 류 현주 |
| P0003311 | 김 안연 | 제식 | P0015484 | 류 운미 |
| P0015860 | 박 윤명 | 선요 | P0013726 | 박 윤희 |
| P0008645 | 박 이원 | 희훈 | P0014443 | 배 미진 |
| P0015077 | 송 정성 | 완철 | P0015168 | 상 민석 |
| P0003698 | 송 심지 | 연미 | P0011044 | 송 영화 |
| P0015625 | 심 안영 | 미식 | P0002072 | 송 영화 |
| P0015080 | 안 연제 | 선요 | P0012827 | 신 성봉 |
| P0015485 | 윤 제선 | 희훈 | P0016159 | 양 성운 |
| P0011539 | 이 명원 | 희훈 | P0015349 | 양 성운 |
| P0015535 | 이 진진 | 희훈 | P0015518 | 여 용구 |
| P0015180 | 이 전성 | 철연 | P0015606 | 원 영아 |
| P0015745 | 정 성철 | 연영 | P0015528 | 음 재득 |
| P0012694 | 지 덕윤 | 성실 | P0015529 | 이 경자 |
| P0013574 | 최 성진 | 성연 | P0015574 | 이 희수 |
| P0008420 | S0015727 | 풍성초등학교 | P0015375 | 이 유나 |
| P0015281 | P0015584 | 황 소갑 | P0011133 | 이 임진 |
| P0012925 | P0015585 | 강 수미 | P0003838 | 이 정화 |
| P0015451 | P0012925 | 황 소갑 | P0000603 | 이 정희 |
| P0016123 | P0015585 | 강 수미 | P0015974 | 이 중호 |
| P0002520 | P0012925 | 황 소갑 | P0012104 | 장 금희 |
| P0016025 | P0015585 | 강 수미 | P0014499 | 정 순희 |
| P0015453 | P0015451 | 강 이정 | P0007159 | 정 영숙 |
| P0010489 | P0016123 | 곽 영영 | P0013036 | 정 영숙 |
| P0002075 | P0002520 | 권 영연 | P0015531 | 정 후속 |
| P0015116 | P0016025 | 김 기원 | P0014244 | 정 후속 |
| P0015621 | P0015453 | 김 동숙 | P0016126 | 제 말선 |
| | P0010489 | 김 숙숙 | P0016111 | 조 만자 |
| | P0002075 | 김 명희 | P0003006 | 천 영희 |
| | P0015116 | 김 병기 | S0016124 | 청담중3-2반 |
| | | 김 상완 | P0015478 | 최 서인 |
| | | | P0014279 | 황 연희 |

북한어린이결연

| | | | |
|----------|------------|----------|------------|
| P0015910 | 황 호준 | S0015924 | 채원서(삼남부)신회 |
| P0015605 | 김 미희 | P0014279 | 황 연희 |
| P0015621 | 김 상완 | P0015440 | 황 영대 |
| P0015420 | 김 세운 | P0013309 | 황 창오 |
| P0015525 | 김 은정 | | |
| P0015365 | 김 은숙 | | |
| P0015407 | 김 인해 | | |
| P0002857 | 김 해경 | | |
| P0015607 | 나 무네 | | |
| S0015670 | 남중양(화랑)지역부 | | |
| P0015695 | 박 봉선 | | |
| P0014009 | 서 인지 | | |
| P0015625 | 심 지연 | | |
| P0015323 | 이 상노 | | |
| P0002177 | 전 성순 | | |
| P0014061 | 정 운자 | | |
| P0015008 | 정 영태 | | |
| P0004942 | 한 은실 | | |
| P0015281 | 허 갑성 | | |
| P0015584 | 황 복웅 | | |
| P0001373 | 강 복빈 | | |
| P0015622 | 공 경순 | | |
| P0011150 | 김 명숙 | | |
| P0010489 | 김 민철 | | |
| P0015907 | 김 재욱 | | |
| P0015610 | 김 정희 | | |
| P0016005 | 김 태운 | | |
| P0008240 | 김 태근 | | |
| P0014590 | 류 석화 | | |
| P0015908 | 박 의석 | | |
| P0001858 | 서 병기 | | |
| P0004501 | 손 경숙 | | |
| P0015258 | 안 용구 | | |
| P0015518 | 연 용아 | | |
| P0015606 | 원 종호 | | |
| P0015974 | 이 중석 | | |
| P0002605 | 정 중석 | | |

북한건설후원

| | | |
|----------|------|----|
| P0015605 | 김 미희 | 회속 |
| P0015424 | 김 현숙 | 속화 |
| P0015077 | 송 경현 | 속속 |
| P0015425 | 안 인점 | 속주 |
| P0002483 | 이 현주 | |
| P0015166 | 김 은주 | |

결핵퇴치후원

| | | |
|----------|------|----|
| P0015407 | 김 인숙 | 속경 |
| P0002857 | 김 해경 | 속화 |
| P0015077 | 송 운희 | 속회 |
| P0015448 | 윤 상노 | 속완 |
| P0015443 | 최 상완 | 속식 |
| P0015621 | 김 성영 | 속성 |
| P0015909 | 김 미부 | 속영 |
| P0002468 | 박 장판 | 속분 |
| P0007414 | 장 판 | |
| P0011890 | 정 판 | |

아프간후원

| | | |
|----------|------|----|
| P0015407 | 김 인숙 | 속경 |
| P0015077 | 송 경갑 | 속성 |
| P0015584 | 황 상완 | 속용 |
| P0015621 | 김 문희 | 속근 |
| P0010038 | 노 문희 | 속구 |
| P0014590 | 류 종호 | 속오 |
| P0015518 | 이 창오 | 속준 |
| P0015974 | 황 호준 | |
| P0013309 | 황 호준 | |
| P0015910 | 황 호준 | |

* 후원회원 가입신청을 하신 분들 중 첫 후원금을 내신 분만 신규회원으로 등록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해외후원금

| | | | | | | | |
|-----------|---------|----------------------|---------|----------------------------|-----------------|----------|------------|
| 한 영실 | 200\$ | 김 에희(독일) | 500Euro | Son's Food Quality Company | 2005년 뉴욕 후원금 내역 | | |
| 김 인택(필리핀) | 83\$ | 박 주선(독일) | 20Euro | (워싱턴) | 100\$ | 최 경숙(뉴욕) | 1,492.00\$ |
| 필리핀 정토희 | 2,180\$ | 최 경숙(뉴욕) | 151\$ | 2005년 독일 송금내역 | | 이 연순(뉴욕) | 1,200.00\$ |
| 이 경택(LA) | 200\$ | 최 만성(뉴욕) | 100\$ | 이 영숙 | 150Euro | 김 총진(뉴욕) | 1,500.00\$ |
| 윤 소희(LA) | 50\$ | Patricia Leveque(뉴욕) | 100\$ | Fam.Konze | 25Euro | 김 택수(뉴욕) | 1,400.00\$ |
| 박 숙(LA) | 20\$ | 김 기택(뉴욕) | 150\$ | 박 윤경 | 100Euro | 이 정란 | 15Euro |

신규회원(개인,단체)명단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1월 31일까지

특별후원금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 | | | |
|------------------------|---------------------------|-----------------------------------|----------------------|
| 강상희 100,000원 | 손병기,신영옥 100,000원 | 경상대학교 실려누리단 141,140원 | 레이먼드장(필라델피아) 100\$ |
| 경주 동국대 부설 유치원 375,300원 | 송성룡 50,000원 | 제일코리아청년연합 1,364,880원 | 방은숙(필라델피아) 100\$ |
| 바자회수익금 500,000원 | 송영화 50,000원 | 최상노 150,000원 | 정경스님 300\$ |
| 고촌자영가 500,000원 | 심을택 60,000원 | 풍성초등학교 200,000원 | 최옥조 20\$ |
| 곽영주 100,000원 | 양성운 500,000원 | 한영태 60,000원 | 조란희 200\$·4,500Rs |
| 권영진 100,000원 | 연계식 170,000원 | BODY&SOUL외 92,679원 | 권애경 100\$·1,172Rs |
| 권오철 100,000원 | 윤선요 100,000원 | 무명 10,000원 | 도경스님 2,000Rs |
| 김기수영가 200,000원 | 이오예 500,000원 | 도강스님 100\$ | 진실 20,000Rs |
| 김웅 300,000원 | 이원훈 1,000,000원 | 이시화 200\$ | 우영옥, 오숙정 1,500Rs |
| 김태운 1,000,000원 | 인터넷부처님터천불동 300,000원 | 양봉희, 정환순, 정문자, 원성희(필라델피아) 1,000\$ | 김기원 2,300Rs·950,000원 |
| 김태정 120,000원 | 전용택 5,000,000원 | 양봉희, 원성희(필라델피아) 1,000\$ | 박장숙 200Rs |
| 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 200,000원 | 전정안,이진아 결혼축하성금 1,000,000원 | 최옥조 70\$ | 박승우 460Rs |
| 박명희 50,000원 | 정세진님 2월 생일축하성금 100,000원 | 다운스님 200\$ | 김무로 500Rs |
| 박봉선 1,000,000원 | 정종석 85,000원 | 윤경숙, 박장숙, 한영실, 김숙(현유옥) 1,000\$ | 김명희 100,000원 |
| 백성희 500,000원 | | 박명희 100\$·500Rs·50,000원 | 천영희 50,000원 |
| 변기환 1,000,000원 | | | 조순이 50,000원 |
| | | | 채순이 100\$ |

파키스탄 성금

2006년 1월

| | | | |
|--------------|--------------|----------------|--------------------|
| 김금미 180,000원 | 문상식 100,000원 | 임현우 1,000,000원 | 김명규 30,000원 |
| 김석용 100,000원 | 박성희 50,000원 | 장부영 100,000원 | 신상우 10,000원 |
| 김지현 50,000원 | 배정숙 100,000원 | 장승희 30,000원 | 뉴욕김기덕 100\$ |
| 김지혜 50,000원 | 이상룡 100,000원 | 정영수 70,000원 | 뉴욕이상범 200\$ |
| 김태갑 20,000원 | 이승희 50,000원 | 피윤희 10,000원 | 독일 베를린 전체신도 40Euro |
| 김황운 100,000원 | 임남환 200,000원 | 황규순 100,000원 | |

*2005년에 주신 파키스탄 성금은 www.jts.or.kr로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물품후원

2005년 12월 26일부터 2006년 2월 25일까지

- 스님 오이퍼를 4박스, 재활용의류 2박스
- 김순연 손지갑 6개
- 김순기 볼펜 1봉투
- 금장사 망토 4장
- 제이유네트워크(주) 엔퍼킵즈 칼슘 40통 (총 7,920,000 상당)
- 서울경도회 사탕 1박스
- 동학사 고무신 1박스
- 봉덕사 혜옥스님 의류 등 물품 4박스
- 뉴욕-성지순례팀(김숙현, 방은숙, 박장숙, 최명숙) 교재 (200불), 의약품, 망토, 볼펜, 초콜릿
- 뉴저지-한영실 책, 옷, 슬리퍼 -1가방
- 필라델피아-윤영환 어린이, 어른용 칫솔 (1000불 상당)
- 필라델피아-성지순례팀 책, 의약품 등 2가방
- 워싱턴정도회 책, 볼펜, 초콜릿(150파운드 상당)
- 콜럼버스-하일숙 영문백과사전 1세트
- 금천선원 각종의류 및 학용품 2박스
- 무주상수건, 칫솔, 양말 등 1박스
- 운문사 수건 4, 양말 7, 상의1점
- LA정도회 의약품(아목시클린) 5통
- 김주옥 이불, 침대패드 등 38점
- 염순덕 각종 끈종류 및 원단 3박스, 지퍼류 50묶음
- 부산 소림사 개량한복 1박스
- 유앤드림(주) 접퍼, 바지 등 의류 12,100점 (총 285,000,000원 상당)
- 울산 이상희 원단 2롤 1박스
- 울산 광정회 여름샌들 186켤레
- 동대문 가나직물 원단 대-29, 중-12, 소-78몽치
- 아름다운 가게 (제일기린제약) 아이스박스 53개
- 김양산 데이바스비누 20세트(총 1,782,000원 상당)
- 신명선 타올 8, 비누 1묶음
- 대구 상록수체육복 체육복 등 의류 33박스-1,316점
- 남궁영민 치약 14, 비누 12, 칫솔 1개
- 무주상 필통3, 연필 10자루, 색싸인펜 21자루



JTS 회원국에서 알려드립니다

● 명단 확인 바랍니다.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은행으로 성금을 보내주셨으나 주소나 전화번호 그리고 후원분야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후원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이름이 있으신 분들은 꼭 연락바랍니다. (입금일, 이름, 입금은행명 순)

*2회이상 입금하신 분은 1회 내역만 실었습니다.

| | | | | | | | | | | | |
|-------|--------|----|-------|------|-----|-------|-----|-----|-------|-----|-----|
| 12/30 | (주)한국계 | 조홍 | 1/11 | 노문웅 | 외환 | 12/19 | 양현용 | 국민 | 1/31 | 장진숙 | 조홍 |
| 1/16 | 강명순 | 국민 | 12/12 | 노미선 | 국민 | 12/10 | 여윤현 | 농협 | 12/30 | 전은미 | 신한 |
| 1/26 | 강성욱 | 국민 | 1/10 | 노재성 | 농협 | 12/26 | 여정애 | 우체국 | 12/15 | 정순임 | 농협 |
| 1/25 | 강세환 | 조홍 | 1/31 | 노재권 | 국민 | 1/20 | 연미경 | 우체국 | 12/5 | 정영숙 | 우체국 |
| 1/12 | 강해수 | 농협 | 1/31 | 류은화 | 하나 | 1/12 | 오종석 | 국민 | 1/3 | 정은선 | 농협 |
| 1/5 | 강현주 | 농협 | 12/6 | 문상인 | 국민 | 12/30 | 유강하 | 국민 | 1/20 | 정은지 | 국민 |
| 12/1 | 곽형길 | 농협 | 12/27 | 문수진 | 국민 | 12/26 | 유상열 | 국민 | 12/15 | 정현아 | 우체국 |
| 12/20 | 권대현 | 외환 | 12/26 | 문화희 | 농협 | 1/20 | 유상혁 | 국민 | 1/20 | 정혜선 | 우체국 |
| 1/24 | 권연수 | 국민 | 1/30 | 민경희 | 국민 | 1/25 | 유희연 | 조홍 | 12/15 | 조명순 | 우체국 |
| 12/21 | 김갑숙 | 국민 | 12/20 | 박남범 | 우체국 | 12/20 | 윤길순 | 농협 | 1/9 | 조현정 | 조홍 |
| 1/31 | 김갑순 | 농협 | 12/23 | 박달숙 | 농협 | 12/08 | 윤희순 | 국민 | 12/26 | 주용운 | 기업 |
| 12/12 | 김귀례 | 제일 | 12/1 | 박상아 | 농협 | 12/1 | 이경선 | 농협 | 1/26 | 주은정 | 우체국 |
| 12/5 | 김기환 | 농협 | 12/28 | 박선미 | 신한 | 12/7 | 이경숙 | 신한 | 12/20 | 주혜영 | 농협 |
| 12/1 | 김도영 | 외환 | 12/16 | 박승경 | 우체국 | 12/28 | 이경열 | 조홍 | 12/20 | 지보사 | 국민 |
| 1/2 | 김도현 | 외환 | 12/19 | 박연옥 | 농협 | 12/30 | 이경희 | 우리 | 12/21 | 차미화 | 제일 |
| 12/30 | 김동숙 | 농협 | 1/27 | 박옥순 | 농협 | 12/1 | 이남숙 | 국민 | 12/19 | 차윤실 | 국민 |
| 12/28 | 김명순 | 신한 | 12/13 | 박옥희 | 농협 | 1/27 | 이만덕 | 하나 | 1/10 | 최명일 | 조홍 |
| 12/7 | 김문기 | 외환 | 12/12 | 박주용 | 국민 | 12/08 | 이범영 | 농협 | 12/27 | 최명희 | 외환 |
| 12/19 | 김미경 | 농협 | 1/25 | 박중희 | 농협 | 12/26 | 이부건 | 국민 | 1/31 | 최연영 | 우체국 |
| 1/31 | 김미정 | 외환 | 12/17 | 배예현 | 농협 | 1/25 | 이상범 | 국민 | 1/16 | 최은별 | 국민 |
| 12/19 | 김선미 | 농협 | 1/26 | 배재석 | 외환 | 12/22 | 이성욱 | 농협 | 12/15 | 최은주 | 조홍 |
| 12/1 | 김선옥 | 농협 | 1/10 | 백경희 | 농협 | 1/9 | 이연숙 | 우체국 | 12/19 | 최인자 | 국민 |
| 12/1 | 김선희 | 국민 | 12/10 | 백윤순 | 농협 | 1/16 | 이영미 | 국민 | 1/7 | 최지영 | 국민 |
| 12/20 | 김성훈 | 우리 | 1/23 | 변성운 | 농협 | 12/26 | 이영숙 | 국민 | 12/30 | 최태연 | 국민 |
| 1/31 | 김세준 | 우리 | 12/28 | 부채관리 | 국민 | 12/15 | 이윤미 | 국민 | 1/31 | 최한운 | 국민 |
| 12/1 | 김순희 | 농협 | 1/11 | 성공사회 | 농협 | 12/23 | 이재숙 | 국민 | 12/29 | 하효남 | 조홍 |
| 1/16 | 김애숙 | 국민 | 12/21 | 손광희 | 조홍 | 12/1 | 이주영 | 국민 | 12/7 | 하효남 | 조홍 |
| 12/20 | 김연정 | 국민 | 12/9 | 손미옥 | 국민 | 1/5 | 이혜영 | 국민 | 12/19 | 한만석 | 농협 |
| 12/21 | 김영찬 | 조홍 | 1/25 | 손요환 | 국민 | 12/5 | 이현정 | 국민 | 1/27 | 한명숙 | 국민 |
| 12/21 | 김오순 | 농협 | 12/13 | 송경애 | 농협 | 1/31 | 이형은 | 국민 | 12/8 | 한희순 | 국민 |
| 12/12 | 김용숙 | 농협 | 12/27 | 송민철 | 국민 | 12/12 | 이화순 | 농협 | 12/22 | 허태윤 | 제일 |
| 12/19 | 김인필 | 국민 | 12/12 | 송준숙 | 농협 | 1/2 | 이효정 | 조홍 | 1/23 | 허태윤 | 제일 |
| 12/15 | 김점순 | 농협 | 12/16 | 송진숙 | 농협 | 12/5 | 임수영 | 조홍 | 12/9 | 홍수진 | 농협 |
| 1/27 | 김정민 | 국민 | 1/20 | 신동호 | 국민 | 1/24 | 임소현 | 농협 | 1/26 | 홍언년 | 국민 |
| 1/27 | 김정석 | 국민 | 1/02 | 신상우 | 국민 | 1/31 | 임영해 | 농협 | 1/18 | 홍언년 | 국민 |
| 12/6 | 김정현 | 국민 | 12/30 | 신현정 | 조홍 | 12/17 | 임재찬 | 농협 | 12/20 | 홍윤숙 | 하나 |
| 1/26 | 김태순 | 외환 | 12/15 | 심상진 | 조홍 | 12/30 | 임창숙 | 농협 | 12/19 | 홍지영 | 국민 |
| 12/6 | 김혜영 | 국민 | 12/05 | 심옥취 | 우리 | 12/7 | 장병대 | 농협 | 12/20 | 황인수 | 국민 |
| 12/27 | 김홍규 | 국민 | 12/19 | 심정섭 | 국민 | 12/23 | 장성우 | 국민 | 12/20 | 황현주 | 하나 |
| 1/6 | 남원사 | 국민 | 12/13 | 안수정 | 국민 | 12/30 | 장진숙 | 조홍 | | | |

(사)한국JTS CMS 출금이체신청서 안내

1. CMS는 (사)한국JTS(이하 JTS)에서 정기적으로 금융결제원을 통해 회원님들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직접 약정된 후원금을 인출하는 시스템입니다.
2. 출금이체약관 동의서는 후원금 출금시 임의로 CMS 도용을 막고, 후원자와 JTS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3. CMS를 이용하시는 회원님들은 후원금을 인출할 통장의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4. 후원자와 예금주 명의가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예금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5. 본 단체는 회원님과 약속한 출금 날짜 25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과 후원기간동안만 별도의 통지 없이 후원금을 인출할 것입니다.
6. 정해진 기일에 인출이 없을 경우, 다음달에 CMS로 2달분 후원금을 인출하거나 임의로 날짜를 정해서 인출하지 않습니다.
7. CMS 신청은 출금이체약관에 후원회원 본인의 직인 혹은 서명이 있어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분은 출금이체 약관을 꼭 읽어 보시고,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입금시 계좌번호

예금주 : (사)한국제이티에스

| | |
|------|-------------------|
| 국민은행 | 086-01-0339-254 |
| 국민은행 | 086-01-0339-246 |
| 농협중앙 | 044-01-094677 |
| 우리은행 | 430-04-119833 |
| 외환은행 | 108-22-03140-0 |
| 제일은행 | 427-10-011141 |
| 조흥은행 | 348-01-111624 |
| 하나은행 | 103-230740-00104 |
| 신한은행 | 260-05-011808 |
| 기업은행 | 216-043061-04-013 |
| 우체국 | 013755-01-003667 |
| 국민은행 | 075601-04-000298 |

(통일돼지저금통)

CMS 출금이체 약관

1. 앞면의 본인(예금주)이 납부하여야 할 요점에 대하여 은행 앞으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없이 본인의 지정출금계좌에서 수납기관(한국JTS)이 정한 지정출금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대체납부하여 주십시오.
2.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 지정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순위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4.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수납기관으로부터 사전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하겠습니다.
5.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기로 하며 청구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기로 합니다.
6.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은행영업시간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출금처리됩니다.
7. 출금이체 해지 요청시 동일계좌에 동일 수납기관으로 여러건의 출금이체신청이 존재할 시 은행은 납부자의 요청대로 처리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납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문의 02-587-8992 / E-mail : jtsmember@jts.or.kr(담당자 : 정한정)